

##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다니엘, 요엘, 욥기

### ◆ 예레미야 애가

1. 주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탄식하며 구원을 간구함.

2. 구조:

1) 애가 1: 몰락한 시온 (1장): 영광스러웠던 시온이 망하여 비참하게 된 현실을 탄식하며 애도함.

2) 애가 2: 여호와의 진노(2장):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원수가 되셨으니, 시온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3) 애가 3: 예레미야의 슬픔(3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을 이길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하심이다.

4) 애가 4: 여호와의 진노(4장):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고통을 회상하며, 방관자 에돔을 저주한다.

5) 애가 5: 회복을 비는 호소 (5장): 백성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관계의 회복을 호소함.

-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리라는 자비에 대한 희망을 놓치 않는다(3:22-23).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며,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서 슬픔과 절망과 폭력에 반대해야 함을 암시한다.

-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의 깊은 고통과 영적 고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그분의 백성 시온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은 심판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

- 예레미야의 통곡과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들

통곡하는 예레미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이 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2:11)</li> <li>▶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3:48)</li> </ul>
통곡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들이 죽음(2:12)</li> <li>▶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 삶아 먹음(4:10)</li> <li>▶ 늙은이, 젊은이, 처녀, 청년들이 칼에 쓰러짐(2:21)</li> <li>▶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짐(4:1)</li> <li>▶ 젖먹이가 목 말라서 허가 입천장에 붙음(4:4)</li> <li>▶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음(4:5)</li> <li>▶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4:9)</li> <li>▶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음(5:10)</li> <li>▶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심(3:18)</li> </ul>

◆ 오바다

1. 주제: 언약 백성이 망했다고 좋아하며 함께 괴롭힌 친족국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 구조:

**1) 에돔 심판 (1-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조롱하고 괴롭힌 친족국 에돔을 심판하신다.**

A. 심판 선고(1-9절): 하나님이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여 낮추시고, 다른 나라에게 약탈당하게 하실 것임

B. 심판 이유 (1-14절): 에돔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탈당할 때 방관하고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2) 시온의 승리 (15-21절): 하나님이 에돔과 이방 대적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이 시온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A. 심판의 본보기 (15-16절):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이 본보기로 심판 받을 것이다.

B. 시온의 구원 (17-21절):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서 구원을 얻고 기업을 회복하며 주변 나라도 얻게 될 것이다.

-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친족국 에돔의 최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스스로 천하무적이라 생각하는 자들(ex. 견고한 페트라 성 때문에)을 패배시키신다. 적극적인 악을 행한 죄 못지 않게, 방관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주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 다니엘

1. 주제: 제국이 흥망성쇠하여도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2. 구조

**1) 궁정 기사 (1-6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궁정에서 겪은 역사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

A. 느부갓네살의 꿈 (1-4장): 여호와가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는 분임을 왕과 백성이 알게 됨.

B. 벨사살의 잔치 (5장): 벨사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므로 왕권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 넘겨짐.

C. 다리오의 금령 (6장): 다니엘이 다리오의 명을 어기고 기도하여 극형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심.

## 2) 환상 예언 (7-12장):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장차 일어날 전쟁과 환란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았다.

A. 벨사살 때 (7-8장):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제국들의 변천 역사를 환상을 통해 보게 됨.

B. 다리오 때 (9장): 다니엘이 백성의 대표로 통회 기도를 하고 칠십 이레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C. 고레스 때 (10-12장):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큰 전쟁들과 환란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주전 605년 경(여호야김 3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공무원 후보자로 발탁되었다. 느부갓네살의 첫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 왕국의 관리로 등용되었다. 바벨론 패망후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은 후에도 다니엘은 80세 쯤 되었을 때 120개 지방장관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 중 한 명으로 임명된다(6:1-2). 다니엘은 바벨론 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인정도 받은 것이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9:1-19).

- 메시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통치자 위에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제압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

- 다니엘이 섬긴 왕들 (4명)

왕의 이름	제국 이름	관련 사건	살펴보기
느부갓네살	바벨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짐 느부갓네살 왕이 7년동안 미침	다니엘 1~4장
벨사살	바벨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기록된 벽의 글씨를 해석함	다니엘 5, 7, 8장
다리오	메대-바사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 굴에 던져짐	다니엘 6, 9장
고레스	메대-바사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민들이 본토인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옴	다니엘 10~12장

◆ 요엘

1. 주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성령을 약속하신다.

2. 구조:

**1) 재앙과 전쟁 (1:1-2: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A. 땅의 황폐 (1장):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져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근을 탄식함.

B. 외적 침입 (2:1-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이방 군대를 불러 백성을 약탈하게 하실 것임.

**2) 회개 권고 (2:12-17):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회개를 권고하시며 땅의 회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심.**

A. 땅의 회복 (2:12-14):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에서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므로 진정한 회개를 권고.

B. 외적 방어 (2:15-17):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 보호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권고.

**3) 풍성한 복 (2:18-3:21): 언약 백성이 회개한 후에 받게 될 새 시대의 풍성한 복과 구원을 보여준다.**

A. 복된 시대 (2:18-32): 하나님이 그 땅의 풍요와 안전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심.

B. 만국 심판 (3장):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임.

- 메시지: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 욕기

1. 주제: 이 세상의 악과 성도의 고난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2. 구조:

**1) 서문 (1-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사탄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 A. 경건한 욥 (1:1-5):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고, 자녀들과 유복하게 살았다.
- B. 욥의 고난 (1:6-2:10):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려고 소유와 몸을 쳤다.
- C. 친구 (2:11-13):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왔다.

**탄식시 (3장): 욥이 죽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한다.**

**2) 논쟁 (4-27장): 욥의 세 친구가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욥은 무죄를 항변하며 논쟁했다.**

- A. 1차 (4-14장): 세 친구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며, 회개를 권고했고 욥은 무죄를 주장했다.
- B. 2차 (15-21장): 세 친구가 더 거칠게 욥을 정죄하여 압박하고, 욥도 더 심하게 맞서 논쟁했다.
- C. 3차 (22-27장): 두 친구가 아주 심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소발은 침묵하며, 욥도 거칠게 항변했다.

**지혜시 (28장):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3) 강론 (29-42:6): 욥이 최후의 항변을 하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반박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답을 주셨다.**

- A. 욥 (29-31장): 욥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며, 결코 고난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B. 엘리후 (32-37장):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반박했지만 그에게도 답은 없었다.
- C. 하나님 (38-42:6):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입증했다.

**4) 결말 (42:7-17):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욥을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되게 하셨다.**

- A. 판결 (42:7-9): 하나님이 욥의 말이 친구들의 주장보다 옳다 하시며 그를 높이셨다.
- B. 회복 (42:10-17):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재산을 회복하시고, 열 자녀를 다시 주셨다.

-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기복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신정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가?(죄와 벌, 율법과 은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 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나, 거기에 갇히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 메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지혜로는 그 길을 측량할 수 없다.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없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 - 욥의 고난을 보는 관점

인 물	고난의 관점
사단의 관점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욥의 세 친구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엘리후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는 방법이다. - 이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 주는 것이다.

- “만일 경건한 신자들마다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prosper) 평탄하게 살게 된다면(have peace) 만일 세상의 모든 악인들마다 천벌을 받고(suffer)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면(in trouble),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께 불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진노의 표징을 보이신다면(visible marks),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은총의 표징을 남겨주신다면,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따라 살지(by sight), 믿음을 좇아 살지 않을 것이다(not by faith).” - Joseph Caryl (1602-1673), *An Exposition of Job*.